월요광장

푸른길을 걷다

이봉수
현대계획연구소 소장

한 해를 열고 봄을 알리는 절기의 시작인 입춘이 엊그제였다. 이제 동계올림픽도 막이 올랐다. 코로나 시국에서 연속되는 안타까운 참사로 지치고 우울한 마음을 벗어 던지고 새 희망을 가져 본다. 다시 새로운 시작이다.

우리는 '살기 좋은 도시' 따위의 슬로건을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살기 좋은 도시란 무엇일까? 세계의 살기 좋은 도시로 뽑힌 빈이나 멜버른·시드니·오사카·벤쿠버 등은 정치적 사회적 안정성 및 범죄·교육·의료서비스·문화환경·인프라 등의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한다. 여기에 지역적 특성인 친자연적 요소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평가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모두 자연환경이 특별한 도시들이기 때문이다.

도시라는 단어가 주는 느낌은 복잡함과 삭막함이 뒤섞인 공간, 끊임없이 개발이 이루어져 공사가 쉼 없이 이어지는 곳, 그것이 바로 우리가 늘 생각하는 이미지일지 모른다. 그렇기에 언젠가는 도시를 떠나 전원생활을 하리라 꿈꾸고, 대리만족을 얻기 위해 도심 속의 자연을 찾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도시의 편리함을 포기하지 않고도 전원생활을 향유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단순히 생활하는 것이 아닌 삶을 누릴 수 있는 도시, 여유와 인간미가 넘쳐흐르는 도시가 있다면?

그럼 이런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것일까? 작년부터 필자는 건강의 이상 신호 때문에 걷기를 시작했다. 과거에도 운동의 양이 많지는 않았지만 주변의 풍암 저수지나 중앙공원에서 산책을 하곤 했었는데, 최근에는 사무실이 있는 동구와 남구 백운동 주변의 푸른길 공원을 걷고 있다. 오랜만에 푸른길을 걷다 보니 이 길의 탄생에 얽힌 이야기가 생각난다.

도심 환경 변화와 함께 2000년 경전선 노선이 송정역에서 서광주역으로 변경되면서 광주역에서 남광주역을 거쳐 효천역으로 가는 구간이 폐선되고 이의 활용 방안이 논의되었다. 트램과 같은 경전철을 도입해서 상습 정체 구간이었던 대남로의 교통 부담을 줄여 보자는 측과 나무를 심어 녹지공간으로 조성하자는 측의 공방이 있었다. 결국 공원으로 결정되고 2012년 전 구간이 완성된 후 행정이 아닌 시민 주체의 관리를 위해 사단법인 푸른길이라는 시민단체가 조직되면서 시민들의 협조로 푸른길을 만들고 가꾸고 있다.

필자도 서방사거리 인근에 가족의 이름이 들어간 나무를 심었던 기억이 있다. 푸른길을 걸어 보면 이곳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음을 알게 된다. 운동을 위해 나온 사람들, 목적지를 향해 바삐 걷는 사람들, 점심시간 짬을 내 산책을 하거나 퇴근 후 집을 향해 걷는 사람 등 참으로 다양하다. 푸른길은 단순히 폐선 부지에 만들어진 선형의 보행로가 아니다. 백운광장 쪽에는 실개천이 만들어져 있어 친수공간으로의 역할을 하고 있고, 조그마한 공연장과 쉬어갈 수 있는 벤치도 놓였다. 그리고 이곳이 철로였다는 것을 나타내는 조형물도 있다.

이곳은 다양한 활동과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과 행정이 힘을 합쳐 만들어 놓은 광주만의 자랑이다. 전국에서 이렇게 도심을 관통하는 선형공원은 광주가 유일할 것이다. 서울과 같은 타 도시에서도 푸른길 공원을 배우고자 많은 사람들이 방문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푸른길을 자주 걷다 보니 옛날에는 몰라서 관심이 없던 주변에 있는 상점과 의미 있는 공간들 그리고 인근 골목길에 숨겨져 있는 맛있는 식당들을 알아가는 재미도 쏠쏠하다.

차를 타지 않고 걸으면서 보게 되는 시선의 차이를 요즘 들어 확실하게 느낀다. 도심에서 이렇게 한가롭게 빽빽한 나무들 사이를 걸으면서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의 힐링을 할 수 있다니!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는 거창한 도시계획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실감한다. 푸른길 공원을 처음 만들어 냈던 시민들의 마음으로 더 많은 푸른길을 만들어 내는 것이 바로 시민을 위하는 길인 것 같다.

따라서 광주시가 추진 중인 동계천 복원 또는 도심 내 아파트 단지 조경 공간의 산책로 연결을 도시적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푸른길 공원의 확장을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그렇게 해서 보행로나 공원과 광주의 명소들을 연결하는 보행 네트워크를 형성한다면 보다 살기 좋은 도시로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제 시민들이 편하게 걷고 쉬고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는 원칙을 정해 놓고 이를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물론 앞으로 살고 싶은 광주, 매력적인 광주를 만들어 나가려면 지속 가능한 실천이 전제되어야 함은 두 말할 나위 없다.

수필의 향기

인간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

박용수
광주동신고 교사·수필가

도끼로 찍은 듯 쩍 갈라진 건물 사이로 매섭게 눈발이 휘몰아친다. 화정동 아파트 붕괴 현장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마음은 건물 사이로 얼기설기 얽힌 철근들처럼 복잡하고, 바닥에 수북하게 쌓인 건설 자재들만큼이나 무겁다.

흡사 폭격당한 자신의 육신을 보는 듯 오직 냉기뿐, 열기라곤 조금도 없어 보이는 그곳에서 희미한 온기를 느꼈다. 콘크리트 더미 속에 사랑하는 가족을 두고도 소방관 진입을 말리는 유가족들의 마음에서 칼바람 속에 샛노랗게 피어나는 봄꽃이 떠올랐다. 가족의 생사 확인이 무엇보다 중할 터이련만, 소방관들을 위험한 건물 속으로 내몰 수 없다는 대책 위원의 말이 잔잔하게 내 가슴을 흔들었다. 거기에다가 주변 상인들 역시 물질적 피해자라며 그들의 어려움을 존중해 주는 마음까지, 차가운 공기를 훈훈하게 녹였다.

전쟁 영화를 좋아하는 나는, 영화를 볼 때마다 주인공이 전쟁 중에도 어떻게 사랑을 전개하는지 유심히 살펴본다. 전쟁이 치열하고 잔혹할수록 사랑은 더욱 빛나고 위대해진다. 아무리 전쟁 분량이 많아도 사랑이라는 주제를 빛내기 위한 배경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철모를 뚫고 올라온 꽃보다 위대한 것은 죽음을 목전에 둔 전쟁터에서도 활짝 피워 올리는 사랑이다. 전우애, 인류애, 연인 간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총알보다 뜨겁다. 그래서 전쟁의 참혹함은 까마득히 잊고, 훈훈한 사랑에 감동을 받아 가슴이 먹먹해진 상태로 극장을 나온다.

우리를 위대하게 만드는 것들은 참 많다. 사랑, 헌신, 배려, 노력, 용기, 연민, 숭배, 인내, 실패, 존엄, 자존, 사유, 성찰 등은 아무리 소유하고 배워도 넘치는 법이 없다.

가족애와 인류애, 무엇보다 부모의 헌신적인 사랑은 인간을 위대하게 만든다. 가난하고 약한 자를 위해 대가 없이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면 실로 위대하다. 또 누군가의 아픔을 공유하려는 연민, 한계를 넘어서려는 의지와 노력,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용기를 보면 진실로 인간은 위대해 보인다.

이것들이 가치가 있는 이유는 어쩌면 우린 앞에서는 사랑을 말하면서 뒤돌아서서 미워하고, 겉으로는 용기를 말하면서 행동으로는 쉽게 좌절하기 때문은 아닐까. 사랑과 헌신은 결코 실천하기 쉽지 않고, 잠깐만 해찰을 하면 미움과 질투로 변한다. 이런 시기와 증오가 전쟁을 발생시키고, 죽고 죽이는 혼돈에 빠지기 쉬운 것이 요즘 세태이다. 그럼에도 포성이 멎고 화염이 사라지도록 하는 것, 역시 사랑이다. 인간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 사랑이고, 인간이 위대한 이유는 바로 사랑을 할 줄 안다는 것이다.

아파트 붕괴로 인한 상실감, 패배감이 결코 작지 않다. 이를 계기로 보다 진지한 사유와 성찰이 있기를 소망한다. 우리는 성공보다 실패와 좌절을 딛고 슬기롭게 이겨낸 경우가 더 많다. 세상은 수없이 패배하고도 또 일어서고, 수차례 상처 입고도 의연하게 일어서는, 용기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중에 지금의 대책위원회 유가족들이 보여준 모습은 미담을 넘어 참으로 위대한 인간의 모습이다.

절망과 슬픔 속에서 분노하기 쉽고, 타인을 위하기보다 자신의 이익에 집착하기 쉬운 때, 아만과 아집, 교만과 위선에 빠지지 않고 어려울 때 오히려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진짜 인간이 위대한 이유이다. 위급한 순간에도 주변을 돌아볼 줄 아는 이들에게서 좌절과 절망보다 다시 일어설 희망을 느낀다.

지금은 폐허지만 이를 계기로 더 튼튼한 아파트가 지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절망과 슬픔에 빠져 좌절하거나 미워하기는 쉽다. 그럼에도 주변인을 끌어안아 준 대책위원회 사람들의 대응 방식은 인간이 얼마나 숭고한 존재인지를 보여 주었다. 아파트 붕괴 사건에서 건설 비리와 증오를 읽기는 어렵지 않다. 진짜 소중한 것은 그 어려움 속에서 피해자 가족들이 보여준, 이웃을 배려하는 숭고한 사랑의 정신이다. 비록 작고 미세해 보일지라도 절대 과소평가하거나 놓치지 않길 바란다.

꿈꾸는 2040

'86퇴진론'을 '깐부 선언'으로

정준호
위민연구원 이사·변호사

대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박빙 승부가 계속되고 있다. 이재명의 열세다. 안철수와의 단일화 변수가 남아있지만 전망이 밝지는 못하다. 윤석열 측이 MZ세대로 대표되는 2030표심을 이준석을 앞세워 붙잡았기 때문이다. 아니 그보다 세대 포위론으로 이야기되는 60대 표심과의 시너지가 더 직접적이었다. 민주당은 세대 포위론에 반박하지만 지금의 여론조사 열세는 포위된 상황 때문이라는 설명이 맞는 것 같다.

4050표심이 결집되고 있다. 호남과 4050표심이 이재명 지지율의 핵심이다. 선거 전략상 어떤 전략을 펼치는 것이 맞을까? 이미 결집된 4050표심의 극단적 강화? 단순히 생각해도 그리 좋은 전략은 아닌 것 같다. 40%를 넘지 못하는 박스권 탈출 전략으로 4050표심을 강화하자는 참모가 있다면 결코 능력 있는 참모가 아니다.

이런 맥락에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86그룹 퇴진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86퇴진론을 끝나지도 않은 선거의 책임론으로 바라본다면 착각이고 잘못이다. 실제로 지금 4050세대 그리고 호남의 핵심 인사들이 86그룹이고 이재명 지지의 핵심 세력인데 왜 끝나지도 않은 선거를 86그룹이 책임져야 하는가? 이러한 맥락에서 86그룹의 반발이 있다면 이해도 된다. 86퇴진론이 책임론의 성격이라면 실제로 선거가 패배한 뒤 물어도 늦지 않다.

세대 포위론에 대비되는 세대 포용 전략의 관점에서 86퇴진론을 바라보고 해석해 보면 어떨까?

MZ세대는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했거나 시작을 준비하고 있다. 불확실성의 세대이다. 비정규직과 아르바이트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 4050세대는 정규직의 세대이고 대한민국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주력 세대이다. 60대 이상 세대 역시 정규직에서 명예롭게 퇴직한 세대이다. 살아 보니 민주 정부와 이념 따위는 이제는 별로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그저 젊은이들이 편한 세상이라면 MZ세대의 여론에 동조하겠다는 의지가 있다.

이렇게 살펴보면 MZ세대와 장년 세대가 사회 주력 세대인 4050의 표심에 대해 일종의 반발과 반감이 있지 않느냐는 해석이 나온다. 그 원인은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대표되는 민주당 정부에 대한 반감이고, 이미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후보와 한 몸이 된 4050세대에 대한 반발이다. 4050표심의 결집이 강화될수록 이 현상은 계속 심화될 것이다.

86그룹의 퇴진론을 MZ세대에 대한 권력 이양 시각으로 접근하자. 86퇴진으로 2030세대에 공간을 만들어 주고 60대 이상의 세대에게는 이제 정치적 기득권을 내려놓고 선배 세대에 대한 예우를 다하겠다는 선언으로 결론을 내리자. 그렇게 된다고 결집된 4050표심이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를 떠날까? 86그룹이 정치적 주류인 호남 표심이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를 떠날까? 선거 전략의 핵심 키워드가 확장성이라면 지금 언급된 86퇴진론 이상의 전략이 과연 존재하는가?

송영길 대표의 기자회견 이후 특별한 86그룹의 움직임은 없었다. 특히 다수의 86그룹 출마가 예상되는 호남에서의 움직임은 더더욱 없었다. 이 지역 초선 국회의원이 앞으로 3선 연임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지만, 시민들에게는 재선은 꼭 하겠다는 말로 들릴 뿐이다. 내려놓고 위임하는 움직임이 없으니 바라보는 상대방이 '그러니까 기득권이 맞다'고 소리치면 과연 반박이 가능한 상황인가.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의 법통을 계승하려는 이재명 후보의 시대정신은 청년 대한민국이다. IMF를 극복하고 국민의 참여를 이끌어 냈으며 통일의 불씨를 살리면서 여기까지 왔지만 이재명 민주 정부의 다짐은 청년 대한민국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의 외침만으로는 안된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를 떠받쳐온 주력 세대들의 동의와 동조 그리고 내려놓음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냉정히 이준석과 같은 신세대의 여론을 움직일 수 있는 미래 자원도 민주당에 없지 않는가. 주류 세력의 진정성 있는 내려놓음과 호소 없이 어떻게 이 선거를 이기려고 하는가.

결론을 내릴 때이다. 기왕 어렵게 나온 86퇴진론은 '깐부 선언'이 되어야 한다.

社說

내일 대선 토론 결렬 "뭐 그리 안 되는 게 많나"

내일로 예정됐던 여야 대선후보 4인의 '2차 TV토론'이 사실상 무산됐다. 국민의힘 측은 이번 토론회를 주관하는 한국기자협회와 생중계를 맡은 JTBC의 편향성을 지적하며, 종합편성채널 4사가 토론회를 주관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에 대해 다른 정당들이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협상은 결렬됐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서로 결렬 책임이 있다며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TV토론 협상단장인 성일종 의원 명의로 "실무협상 과정에서 안철수 후보 측이 8일 관훈토론이 예정돼 토론 진행을 하루 이틀 정도 늦출 수 있는지를 타진해 왔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의당은 이 같은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사실은 국민의힘이 기자협회의 편향성을 문제 삼으면서 기자협회가 빠져 줄 것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이어 국민의힘이 "갑자기 또 윤석열 후보의 건강과 컨디션 문제를 얘기하면서 날짜 변경을 언급했다"며 이들의 주장에 근거가 빈약함을 강조했다.

이처럼 책임 공방이 오가는 가운데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두 번째 TV토론 관련 실무 협상이 결렬된 데 대해 "윤석열 후보 뭐 그렇게 안 되는 게 많나"라고 날을 세운 뒤 "국민들의 기대를 어떻게 이렇게 가볍게 여길 수 있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조승래 선대위 수석대변인도 "국민의힘이 유달리 날짜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 시중에 별 얘기가 다 돌고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정치권 안팎에서는 윤 후보가 무속적 이유로 특정 토론 날짜를 고집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돌고 있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국민의힘은 토론을 기피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말고 당당하게 토론에 응하는 것만이 대선후보로서의 도리일 것이다.

부실시공·책임전가·거짓말 엄벌 필요하다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사고'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등 공사 관계자들의 거짓말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다. 현재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현대산업개발 관계자 여섯 명, 감리 세 명, 하청업체 관계자 두 명 등 모두 열한 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건축법·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한데 이들은 부실 공사에 대한 책임 인정은커녕 발뺌과 허위 진술로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현대산업개발 측은 지연된 공사 기간을 맞추기 위해 서두르면서 사고가 빚어졌다는 광주일보의 지적에 "애초 공기보다 빠르게 진행됐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수사 결과 공정은 두 달가량 지연됐던 것으로 파악돼 이들의 말이 거짓말임이 드러났다.

여기에 감리보고서조차 허위 작성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직전 광주 서구에 보고된 2021년 4분기 감리보고서상 공정률은 계획 공정(60.3%)을 넘어선 62.6%로, 실행 공정이 103.8%에 달했다고 적혀 있지만 경찰이 파악한 당시 공정률은 계획에 훨씬 못 미치는 57%였다.

이밖에 현대산업개발 측 현장소장은 경찰 조사에서 "발령받은 지 2주밖에 되지 않아 사고 현장 상황을 잘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회사가 아파트 착공 전인 2019년 5월 광주시 서구에 제출한 공사개요서 등에는 해당 관계자가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동바리 철거 등을 놓고 시공업체와 하청업체는 서로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하고 있다.

이처럼 사고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채 발뺌에만 급급하는 행태를 묵인하면 언제 어디서든 제2, 제3의 사고가 재발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수사로 책임 소재를 명백히 가려 일벌백계해야 한다. 대형 참사에 상응하는 강력한 처벌로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無等鼓

민심의 바다로

"호남 지역 민주당 지지율이 왜 이렇게 오르지 않는 건가요? 대통령 선거 당일 투표에서도 이런 지지율이 나온다면 선거에서 이기기가 어려울 텐데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설 명절 전후에 민주당 선거대책본부 관계자로부터 이런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는 오피니언 리더들이 적지 않다.

아닌 게 아니라 최근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다. 이런 상황이니 민주당으로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지역 지지율이 최소 80% 이상은 나와 주어야 하는데 현재로선 크게 못 미치고 있어 걱정스럽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호남 지역 지지율은 60%대 박스권 안에서 오르내리고 있다. 가장 최근인 지난 6일 나온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호남권에서는 이 후보가 65.6%의 지지율을 확보하긴 했지만, 윤 후보도 18.1%라는 두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하며 선전하고 있다. (이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오차 범위 ±3.0%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이번 조사에서 전국적으로 두 후보의 지지율이 오차 범위 이내라는 점을 감안하면, 민주당에겐 '영원한 텃밭'으로만 여겨졌던 호남의 '낮은' 지지율이 더 아쉽게 느껴질 수 있는 대목이다. 물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가게 되면 불이 붙을 것으로 생각한다"(송영길 당 대표)거나 "그래도 투표장에 가면 전략적 선택을 하지 않겠나"(윤영덕 국회의원)라는 기대 섞인 분석들도 있다. 하지만 그야말로 엄중한 박빙 상황에서 잘못된 판단은 결정적인 패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런 만큼 "호남 유권자들은 정권 재창출을 바라지만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실망과 이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된다"며 "결국 민주당이 민심 속으로 더 파고들어야 한다"는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 국회의원의 분석이 오히려 더 피부에 와 닿는 게 사실이다. 아전인수식 판단은 전세를 그르친다. '민심의 바다'에 더 깊숙이 뛰어들기를 민주당에 권한다. /홍행기 정치부장 redplane@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정 치 부 220-0632 예 향 부 220-0692
경 제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4
사 회 부 220-0652 체 육 부 220-0621
전 남 본 부 220-0642
경 영 지 원 국 220-0515 문 화 사 업 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
기 획 관 리 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FAX 222-0195〉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